

LCD TV 주춤에 재료기업 희색

세대간 시간격차 너무 좁아져 대응 못해 ... 장기적으로는 고민

LCD TV 시장이 각종 조사기관과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자 LCD 디스플레이 재료를 공급하려는 국내기업의 일부 관계자들이 이를 반가워하고 있어 주목된다.

TFT LCD 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노트북과 모니터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수요를 견인해왔으나 성장세가 2000년대 들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LCD가 폭넓게 소비자들의 저변에 확대되면서 시장의 경계를 대화면 TV 시장까지 확장해 40인치 가량의 사이즈에서는 PDP TV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40인치 이하의 TV 시장에서는 PDP에 우위를 점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중론이었다.

사실 LCD 시장의 성장은 워낙 폭발적으로 이루어져 세대간의 시간 격차가 매우 타이트했고 이로 인해 재료를 공급하는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테스트 과정을 거치지도 못하고 재료시장의 선발주자들이 차세대 LCD 생산라인을 점유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러나 최근 LCD TV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하자 6세대, 7세대 생산라인 뿐만 아니라 차세대 생산라인의 가동계획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고 시장진입을 위해 재료를 테스트중인 후발기업들은 시장상황을 은근히 반기고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후발 재료기업들의 시장진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 LCD TV 시장의 성장이 전망치를 밑돌면 LCD 시장 뿐만 아니라 재료시장의 위축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LCD 시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화학저널 2004/06/25>